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

권오봉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자는 14일 “경제 활력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당선자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은 깨끗한 행정과 전문성을 발휘해 여수를 발전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수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 과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선 “여수산단의 인재채용을 확대하고 투자유치를 적



극 추진하겠다”며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문제는 박람회재단과 협력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경도와 화양지구 개발도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사랑방 좌담회를 열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곽재영 기자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

정현복 광양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당선자는 14일 “30만 자족도시, 전남 제1의 경제도시 광양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공장과 부품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며 “어린이테마파크, 이순신대교 해변공원, 구봉산 관광단지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선 “광양보전대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스코와 동반 성장할 방안을 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초등학교 입학 학생 학습용품 구매비를 지원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청년수당과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여성들에게는 다동이 출산맘 행복 쿠폰을 지급하는 등 복지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1천만 담양 관광시대로”

최형식 담양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당선자는 “1,000만 담양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4선 단체장이 된 최 당선자는 “지속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들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며 “군민의 뜻을 받들어 담양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죽녹원 개발과 생태 도시화 정책으로 연 190만명이던 관광객이 70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인문학 교육도



시, 청년이 함께 하는 벤처기업 도시, 생태 정원 도시를 목표로 군민과 함께 담양 발전의 신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산업단지, 메타프로방스, 문화재생 사업, 천년 담양 기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담양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담양=장동원 기자

“주어진 소임 최선을 다할 것”

허석 순천시시장

허석 순천시시장 당선자는 14일 “시민 여러분께 다짐한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며 열정과 성실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허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변화를 바라는 순천 시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새로운 순천에 대한 시민의 여망이 만들어낸 축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후 풀어야 할 숙제 대해 그는 “하나 된 순천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동안의 반목과 분열을 멈추고 모두가 함께 하나 된 순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당선자는 이어 “순천을 순천답게 만들고 순천에 사는 것을, 순천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믿고 따라준 캠프 관계자들과 묵묵히 성원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장성 부흥 이끌겠다”

유두석 장성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자는 “선거 때 발표한 공약에 군민 여러분의 훌륭한 건의를 받아들여 장성의 부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유 당선자는 “민선 7기에는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연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통과 화합을 군정의 대전제로 펼쳐 군민 여론과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와 헌신으로 일관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역점 사업으로는 국립 삼현관센터 안착, 고려시멘트 공장 활용방안 모색, 장성읍내 권 경제 활성화, 노란꽃축제 전국화, 공공입대아파트 유치 등을 내세웠다. 유 당선자는 “모든 경험과 능력을 쏟아 장성의 미래를 가꾸는 일에 맘껏 쏟는 일이 없도록 배려와 헌신으로 일관

“행복지수 1위 고장 만들겠다”

유근기 곡성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당선자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보낸 믿음과 성원은 곡성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군민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다”고 밝혔다.

유 당선자는 “곡성을 행복지수 1위의 고장으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주민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역별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장수 프로젝트, 미래희망 프로젝트, 가치창출 영농정책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



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군정을 끌어가겠다”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약하는 자세로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귀를 열고 발로 뛰겠다”고 마음가짐을 밝혔다. 유 당선자는 “주민의 힘으로 곡성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열린 군수 통합 군수 될 것”

김철우 보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자는 “군정 공백을 메우고 군민의 생활부터 챙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힘 있는 군수가 되어 침체된 보성의 경제를 살리고 발전을 이끌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로 이끌어준 보성군민 여러분은 매우 위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함께 경쟁한 후보들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성공하는 보성,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모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수, 통합의 군수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군민들과 함께 손잡고 희망의 새로운 보성을 만드는 자랑스러운 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성=선성희 기자

“분열된 군민화합 복원”

정종순 장흥군수

정종순 장흥군수 당선자는 “하나 된 군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행복 장흥’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당선자는 “현명한 판단으로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신 장흥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며 “군민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더 큰 믿음과 신뢰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군



민의 화합을 복원하겠다”며 “오직 장흥 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지역별전을 위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바른 행정, 열린 행정,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인구 3만명 달성 위해 최선”

김순호 구례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당선자는 “인구 3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집권여당의 군수로서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를 다니며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장 중심의 혁신 행정 실현,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복지 증대 등 6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리산과 섬진강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구례를 미래 농업·건강·생명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민주평화당 박인환·무소속 정경태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이제는 구례가 하나 되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구례=김진석 기자

“개혁과 군민 통합 이룰 터”

송귀근 고흥군수

송귀근 고흥군수 당선자는 “고흥을 개혁하고 바로 세우라는 군민의 뜻을 끝까지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당선자는 “제가 당선된 것은 변화를 바라는 고흥군민의 승리”라며 “개혁과 군민 통합을 함께 이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향을 떠난 고흥의 아들과 딸들이 귀향해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는 ‘귀향 고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



겠다”며 “최고령 고흥을 장수복지 고흥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함께 경쟁했던 공영민 후보에게도 위로를 보내고 고흥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진준영 기자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

구충곤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당선자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다잡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구 당선자는 “저에게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공정하고 안전한 화순을 만들어 ‘화순 사는 자부심’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예산 7,000억원 시대를 활짝 열어 1조원 시대를 향한 초석을 다지



다”면서 “30년 만에 개방한 화순적벽을 이제 화순망으로, 군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정에 복귀하자마자 이번 선거기간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을 면밀히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클릭! 고향 소식



화순 산림휴양시설 점검

화순군은 피서철을 앞두고 관내 자연휴양림 및 산림휴양 시설 등 4개소에 대해 환경정화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집중호우 대비 피해우려 시설과 소방, 전기, 가스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수질검사, 위기관리 대응 숙지 여부, 고객서비스 친절교육 등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설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양질의 휴양서비스 제공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광양 충치 예방 인형극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보건소에서 ‘도와줘요. 치가요정!’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인형극은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해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백현숙 건강증진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순천 홀몸 어르신 물품 지원

현대제철 순천노조 봉사단은 최근 수주용 홀몸 어르신 6가구를 찾아 안부를 살피고 안전 물품을 지원·설치했다. 이날 봉사단은 가정별 맞춤형 안전물품을 설치하고 준비해간 간식을 함께 먹으며 안부를 살폈다. 이동원 지회장은 “한 팀이 여러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 어르신들과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 아쉬웠었다”며 “이번에는 한 팀이 한 가정을 봉사하는 것으로 계획해 말벗까지 해드릴 수 있어 더 보람됐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곡성 대학생 멘토링 진행

곡성군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희망곡성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광주교육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초등학교 43명을 대상으로 학습 역량 평가, 진로설계, 상담 등 멘토링을 진행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녀의 학습 역량과 성향을 조금이나마 전문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멘토링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